전주공예품전시관, ‘소반 ; 차림’ 특별전

국립무형유산원 전승 공예품은행 보유 20종 30여 점 전시 · 호족반 만들기 워크숍도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2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소반 ; 차림’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반은 음식 등을 올려놓기 위한 작은 상으로, 이를 만드는 장인을 예부터 ‘소반장’이라 일컬어 왔다. 이번 ‘소반 ; 차림’ 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색의 소반에 문발과 단청 병풍을 함께 연출, 소반의 유려한 곡선과 문발의 직선이 어우러진 전통미를 맘껏 뽐낼 예정이다.

전시되는 작품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 공예품은행이 보유한 20종 30여 점이다.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서는 △소반장 작고 보유자 (故)이인세 명인의 소반 제작공정 △대나무, 갈대 등으로 발을 만드는 염장 보유자 조대용 명인의 제작 현장 등을 담은 기록화 영상도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기능 국가무형문화재 △소반장 작고 보유자 (故)이인세 △소반장 보유자 김춘식 △염장 보유자 조대용 △옹기장 이수자 김창호 △칠장 이수자 김효석 △칠장 이수자 박만기 △염장 이수자 조숙미 △칠장 전승교육사 이상목 △소반장 전승교육사 이종덕 장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18일에는 이번 특별전과 연계해 ‘호족반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된다. 워크숍에서는 소반장 이수자 김영민 장인의 제작 시연을 볼 수 있으며 1팀당 1개의 소반 키트가 제공돼 직접 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2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소반 ; 차림’ 특별전을 진행한다.

시연과 체험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체험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0팀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김선태 원장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이 전통공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전시와 체험 워크숍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현장을 찾지 못할 경우 온라인 전시 영상을 통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유튜브 검색창에 ‘소반 ; 차림’를 검색해 시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온 가족 즐기는 ‘전주마을동심박람회’

전주문화재단, 15일 팔복예술공장서 다양한 콘텐츠 진행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5일 팔복예술공장에서 ‘2022 전주마을동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마을동심박람회’는 전주가 보유한 마을의 숨겨진 자원들을 다채로운 방법으로 기록하고 해설하는 마을술사, 여러 분야의 지역 예술가, 그리고 관람객들이 다 함께 만들어 가는 이야기 박람회로, 아이와 어른,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주 마을들의 이야기 콘텐츠를 선보인다.

그동안의 마을술사 활동을 소개하고, 전주 각 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로 만든 동화책 ‘온고을 전주의 10가지 숨은 옛이야기 3’의 포토존 구성, 동화책 1~2권의 옛이야기로 만든 애니메이션 상영, ‘송은채 & 박윤호’, ‘김성수 모던재즈트리오’ 등 전주의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전주 이야기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가을음감회 공연도 준비됐다.

이 밖에도 전주 마을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사)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와 함께하는 ‘전주 마을 어반스케치’ 전시, 마을술사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각 동의 예술가들과 동네책방이 참여하는 이채로운 체험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사전 예약은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70-7711-3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지 · 상상 · 짓다’ 전통한지 제조교육 진행

전주천년한지관, 29일까지 수강생 모집

전주천년한지관이 전통한지 제조교육 ‘한지 · 상상 · 짓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지관은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내에서 유일한 전통한지 제조 교육을 진행, 한지를 연구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연구인, 예술인부터 일반인까지 폭넓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통한지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한지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통한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전통한지 제조교육 프로그램은 △정통 전통한지 제조교육(이하 ‘정통식 교육’)과 △응용 전통한지 제조교육(이하 ‘응용식 교육’) 두 종류가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응용식 교육), 둘째 주(정통식 교육) 화요일, 수요일 2일간 진행되고 있다.

두 교육 모두 고유의 전통한지 제조 과정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같지만, 정통식 교육은 닥섬유만으로 이뤄진 순지 제조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응용식 교육은 수강생이 원하는 용도 · 목적에 따라 원료들을 섞거나 한지 표면에 오일이나 전분 등을 바르는 과정을 거쳐 본인만의 한지를 만들고 이를 공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전통한지 제조교육은 오는 29일까지 모집 중이며, 각 회차 당 최대 5명까지 수강할 수 있다.

한지관에서는 제조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어린이부터 외국인들까지 전통한지를 느낄 수 있는 일일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선태 원장은 “전통한지 제조교육과 일일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한지 제조 과정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전통한지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김제문화예술회관서 21일 열린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두번째 이야기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가 개최된다.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의 음색으로 펼쳐지는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으로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 완성한 징슈빌(연극처럼 중간에 대사가 들어 있는 독일어 오페라)이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3대 희극 오페라로 선과 악의 대립을 아름다운 음악과 해학적인 요소로 표현해 1971년 초연 이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으로 사랑하는 연인들, 선악의 대결이라는 쉬운 이야기에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 코믹한 요소들을 더해서 약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관람권 예매는 10월 11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고,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은 미술관서 김정희 수채화전

진안군은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제작된 작은 미술관(작품명:생명의 빛)에서 10월 16일까지 서양화가 김정희 수채화 전시가 열린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지역 예술가의 참여로 진안군만의 특색있는 문화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진안군이 주최했던 사업이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은 총 3점으로 마이산북부에 2점, 운산인공습지에 1점을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미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김정희 작가의 수채화 작품은 마이산북부에 위치한 생명의 빛 작품 내부에 7점이 전시된다.

김 작가는 2019년 진안여중에서 퇴임 후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북여류작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연계 전시를 함으로써 진안군민 및 홍삼축제 관광객들에게 진안문화예술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 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연희부 정기공연 ‘사물로 풀어내는 지수화풍’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국립민속국악원 연희부 정기공연 ‘사물로 풀어내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개원 30주년 기념 및 기악단 연희부의 활동을 회고하는 기획음반 ‘사물로 풀어내는 지수화풍(地水火風)’에 수록된 곡을 바탕으로 공연을 구성하였다.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문굿과 비나리를 시작으로 삼도풍물가락, 삼도설장구, 판굿, 진도북춤 등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공연 종료 후에는 공연장을 찾은 모든 관객들에게 국립민속국악원 연희부 기획음반과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해 판소리 ‘수궁가’의 주요 대목을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구성한 스노우캣 탁상달력을 무료로 증정하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